SNUAC Brown Bag Seminar Series, Spring 2022

경찰책임 제도: 비교연구 관점에서 본 통제제도의 수평적 분화

권지현

UNODC의 적극적 추진과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형사사법제도의 민주적 협치 구조와 수평적 감독(horizontal oversight)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 지고 있다. 국민 신뢰도 증진을 위해 여러 외부통제 절차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불확실한 상황 대비를 위해 가외성(redundancy), 즉 중첩성(overlapping) 및 중복성(duplication)을 탑재한 제도를 통해 책임성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예컨대 경찰행정에서는 영미권 국가의 세분된 상호견제제도가 타국가로부터 '모범사례'로 자주 인용되며 제도적 동형화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민간화 · 분권화된 외부통제(external oversight)의 효과성, 제도적 장벽 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본 연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 통제제도를 사례로 여러 기구가 상호균형을 전제로 도입되었지만, 중복적 절차로 인한 관료화와 '법치주의'라는 프레임 아래 시민의 역할축소, 조정기능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성, 사회적 약자 배제와 시민사회-정부 간의 갈등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발표를 통해 본 연구가 법률체계 (대륙법 vs 영미법), 문화, 역사, 인구구조 등이 다른 한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에는 어떻게 적용(apply)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권지현은 맥길대에서 사회학 학사 1등급 이수 후 토론토대 범죄학 및 법사회학과에서 석사 수석 졸업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장학금을 수여받고 현재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마무리 중이며 올여름 디펜스 예정이다. 2012년부터 각종 NGO, 정부기관, 연구프로젝트 등에 가담하며 과잉 형사사법권력행사에 따른 폐해와 현존 통제 장치의 한계점을 인지했다. 온 주 Ministry of the Solicitor General에서 인권재판소 동의 명령 집행을 위해 교정청 및 수감시설 감사역할을 했었고, 한국법제연구원의 사법제도 및 기타 주제 관련 자료조사업무와 법령해석 등을 돕고 있다. 10월부터 방문학자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합류했으며, 현재 한국 사례를 포함한 직무 폭행 통제제도를 역사적, 법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 논문 두 편을 준비 중이다. 장기프로젝트로 국제적 지표와 일반화 가능도 이론 수립을 위해 범아시아지역 사례연구를 구상 중이다.

일시: 2022년 4월 27일 (수),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220호)